

보도시점 : 2026. 10. 28.(수) 14:00 이후(10. 29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28.(수)

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

-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전수점검 계획... 신속추진 TF 통해 사업 지연 최소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전수점검하고, 사업별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.
 - 특히, 관계기관 간 이견과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르고, 신속추진 TF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.
- 앞으로 대광위는 남양주왕숙 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~2주 마다 하남교산, 고양창릉, 인천계양,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체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전수점검하고,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은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10월 29일 오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과 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,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.
 - 남양주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, 진건읍, 퇴계원읍 일원 약 1,269만㎡(여의도 4.4배)에 약 8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대규모 입주에 대비한 광역교통망의 적기 구축이 중요한 지역이다.
- 김 위원장은 경춘선 역사 신설(GTX-B 정차), 한강교량 건설 등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과 지연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, 한강교량 신설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.

- 남양주왕숙지구는 서울 방면 접근성 향상과 입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(서울강동~하남~남양주간),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(별내역~별내별가람역, 서울도시철도 4호선 환승), GTX-B 경춘선 역사 신설과 한강교량 건설,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 철도·도로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대광위는 '24년부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이해관계 갈등,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,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'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'를 운영해 왔다.
- 올해 4월에는 남양주왕숙지구 '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및 GTX-B 경춘선 역사 신설' 2개 사업을 집중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.
- 김 위원장은 “남양주왕숙은 약 8만 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의 핵심 사업지구인 만큼,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
- “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통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, 신속추진 TF를 통해 주요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문석준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 임종채 (044-201-5050) 주무관 백세영 (044-201-5051)